

프랑스 대표작가 자비에 베이앙...누드에 현대를 담다

국내 첫 개인전 `보디스(Bodies)`...313아트프로젝트서

이향휘 기자 입력 : 2014.04.15 17:06:49 수정 : 2014.04.15 17:07:16



프랑스 절대왕정 시대 상징인 베르사유 궁전은 2008년부터 매년 현대미술 전시를 열고 있다. 첫해인 2008년에는 미국 제프 쿤스가, 2010년에는 일본 무라카미 다카시가 개인전을 개최했다. 올해는 한국 현대미술 거장 이우환이 6월에 전시를 연다. 이 시대 최고 작가들이 역사와 전통이 어우러진 공간에 현대적인 숨결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다.

2009년 두 번째로 전시를 연 주인공은 프랑스 리옹 출신 작가 자비에 베이앙(51). 그는 역동적인 말과 원형 형태, 누드 조각을 궁전 내부와 정원에 다양하게 설치하며 화제를 모았다.

퐁피두센터에서도 개인전을 열 만큼 프랑스가 인정하는 대표 작가인 그가 한국 첫 개인전을 위해 최근 방한했다. 서울 도산대로 313아트프로젝트에서 열리는 `Bodies`전에 신작 12점을 선보인다.

세계적인 건축가 르코르뷔지에 모습을 조각한 `모빌` 시리즈와 다양한 누드 신작으로 구성된 전시다.

발가벗은 신체는 어느 특정 시대 흔적을 드러내지 않는 가장 영구적이면서도 변치 않는 인간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시대에 따라 우리가 몸을 인식하는 방법과 그것을 보여주는 방법이 변화하기 때문에 사실상 누드는 언제나 특정한 시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주장한다.

베이앙이 조각을 만드는 데 가장 중시하는 것은 고전의 현대화.

그의 누드 조각은 동시대성을 강조하기 위해 형태와 재료 질감부터 고전 조각과 다르다. 나무와 화학섬유, 브론즈, 알루미늄 등 다양한 소재와 금속주조, 제분, 주형 등 다양한 방법을 쓴다.

"누드를 통해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뷰티라는 개념은 시대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영원하면서도 영원하지 않다는 패러독스가 발생하지요."

작가는 가녀린 여성 신체를 강인하게 표현하길 좋아한다. 언뜻 남성적이면서도 기계적인 느낌을 주기도 한다. 조각 중 상당은 사실적인 반면 하체는 기하학적 형태로 간략하게 구성돼 있다. 인물상을 떠받치는 주추도 조각의 일부로 봐 달라는 뜻이다.

그는 주변에 알고 지내는 지인들을 주로 모델로 세운다고 했다.

베이앙은 2000년 이후 세계 미술계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작가로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조각 공원에도 그의 붉은 말 조각이 놓여 있다. 뉴욕 맨해튼 거리에도 작년 그의 대형 조각 '장 마르크(Jean-Marc)'가 공공미술로 설치됐다. 올해 스페인 바르셀로나 파빌리온과 프랑스 올랑 FRAC센터 전시를 앞두고 있다.

전시는 5월 24일까지. (02)3446-3137

[이향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